

한전공대 첫발 뗏지만 착공까지 힘로

학교법인 창립총회...내달 중 교육부 설립신고 10월11일 한전 본사에서 국감...야당 파상공세 예고

한국전력이 '학교법인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30년 내 세계 최고수준의 전력·에너지 특화 공과대학을 목표로 하는 한전공대 설립작업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하지만 당장 10월 예고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한전공대 설립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파상공세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착공까지 과정은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 초대 이사장에 김종갑 한전 사장

한전은 지난 27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가칭)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설립대표인 김종갑 사장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7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 후보를 포함한 총 9명의 임원진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김종갑 한전 사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임원진 선임과 대학설립계획서, 학교법인 정관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학교법인 정관에서는 총장에게 교원에 대한 임면권을 부여해 교육, 연구, 산학연 등 대학경영 전반에 총장의 교육철학을 담아 혁신적인 대학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10월 중 교육부에 학교법인 설립 신청을 시작으로, 총장 후보자 선임, 캠퍼스 설계 및 핵심교원 유치 등 본격적 개교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30년 내 세계 최고수준 전력·에너지 특화대학' 목표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한전공대는 '30년 내 세계 최고수준의 전력·에너지 특화대학'을 목표로 한다.

한전이 교육부에 학교법인 설립을 신청하게 되면, 교육부는 3개월 내 처리하게 된다. 이 경우 올해 말 학교법인 설립이 가능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공대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40만㎡ 부지에 들어서게 되며 2022년 3월 개교 뒤 단계별 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학생 정원은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이고, 정원 외로 30%의 외국인 학생 300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교수 100명, 직원 100명이며 교수와 학생의 비중을 국내 최고수준인 1대10으로 유지하게 된다.

'에너지공학부'의 공학계열 단일학부만 개설돼 대학과 대학원 모두 단일학부로 학생을 선발한다.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와 대형 연구시설도 함



지난 27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가칭)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께 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된다. 특히 한전은 지자체와 함께 첨단연구시설인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주력하고 있다.

◇야당 반대·정부 지원예산 확보 등 힘로 예고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첫걸음은 내디뎠지만 대학 설립까지는 많은 힘로가 예상된다.

야당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전공대 설립의 부당함을 철저히 파헤쳐 버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0월11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한전을 비롯한 전력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 2014년 한전 본사가 나주로 옮겨 온 이후 지난 2016년 국감이 한전 본사에서 열린 데 이어 3년 만에 다시 나주시 열리게 됐다. 나주까지 내려와 감사를 진행한 데는 야당이 한전공대 문제를 집중 캐론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야당은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

는 상황에서 1조원이 넘는 돈을 한전공대 설립에 투입하는 게 맞지 않다는 논리다.

카이스트, 포스텍, 지스트 등 국내에 이공계 특성화대학이 넘쳐나는데 비슷한 특성화대학을 추가로 세우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반대논리도 펴고 있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해 산업부와 산하 공기업이 나서 대학을 추가 설립하는 건 정부정책의 모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장 확대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운영을 막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한전공대 설립 후 10년 동안 총 2000억 지원을 약속했고, 정부도 이들 지자체 수준의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대할 경우 정부예산 확보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봉우 기자

확 달라진 총장축제...광주다움 담아 세계속으로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추억의 총장축제'가 10월 2일 '추억의 테마거리' 개장식을 시작으로 5일 간의 공식일정에 들어간다.

'추억, 세대 공감!'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총장축제는 5천여 명이 참여하는 총장 퍼레이드를 비롯해 레트로댄스 경연대회, 대학가요제 리턴즈, 추억의 테마거리, 추억의 고고장 등 6개 분야 46개 '추억 보따리'를 풍성하게 풀어놓는다.

이번 축제는 '대한민국 문화관광 최우수축제'에 걸맞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과 세대와 지역을 조월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축제로 차려질 예정이다.

올해 축제의 새로운 시도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광주다움을 담은 시민화합형 행사를 대거 신설한 점이다.

서구, 아쿠아로빅 수중운동 지역주민 호응

광주 서구가 건강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체지방율 30% 이상 관내 주민 60명을 대상으로 아쿠아로빅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위해 서구는 지난 3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개강식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프로그램은 염주실내수영장에서 주 3회, 3개월 과정으로 김영미 강사를 통해 운영되며, 수중운동 외에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영양 및 대시중후군 교육 등 건강생활실천 교육도 병행한다.

남구, 2021년까지 양림동 노후주택 200호 정비

광주 남구는 양림동 지역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노후주택 200가구에 대한 집수리 지원 사업에 나선다.

남구는 27일 '양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이 일대 노후주택의 외부 경관을 개선하는 집수리 지원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2020년 상반기 40가구 정비를 시작으로, 같은 해 하반기 70가구, 오는 2021년에 90가구 정비를 끝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역은 도시재생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양림동 17-5번지 일대이며, 집수리 공사는 지붕과 담장, 외벽, 대문 등 주택 외부 경관을 개선하는데 방점이 맞춰져 있다.

북구, 첨단2지구 상가실태조사 실시

광주 북구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신용동 첨단2지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첨단2지구 상가실태조사는 상권쇠퇴와 공실 증가로 전반적인 경영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체 현황, 경영상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이번 상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침체, 소비위축,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는 경기 상황에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 신정근린공원에 들레길 조성한다

광주 광산구가 월곡2동 신정근린공원에 내년까지 주민 소통 들레길을 조성한다.

신정근린공원은 1990년에 만들어져 약 30년 동안 주민의 사랑을 받아온 곳으로, 그간 들레길 조성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들레길 조성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한 광산구는, 시 예산을 더해 8억원 규모로 산책로와 안전난간,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고, 유아숲 체험원과 휴게시설도 들일 예정이다.

공시에 앞서 광산구는 현장조사, 주민설명회 등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임형택 기자

광주주먹밥 레시피 UCC 공모전 대상에 '오월의꽃'



광주시는 광주정신의 상징 음식인 광주주먹밥의 상품화와 브랜드화를 위해 실시한 '광주주먹밥 레시피 UCC 공모전' 수상작 20편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작은 '오월의 꽃'이 선정됐다. 안지은(33·광주) 씨 외 3명의 공동작품으로 5가지 맛과 색깔, 모양으로 광주의 오월을 표현했다.

금상은 어머니주먹밥(서정희·33·전주)과 JMT불닭주먹밥(박정연·14·광주), 은상은 뽕글이주먹밥(윤경덕·23·대전), 떡갈비주먹밥(강민경·27·광주), 장조림주먹밥(임주빈·28·광주)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광주주먹밥 세트메뉴'를 주제로 실시, 지난 7월17일부터 8월15일까지 구성 메뉴별 조리과정과 세트 모습이 담긴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46편을 접수했다.

시는 1차 서류 심사에서 20편을 선정 후 지난 26일 전문가 재현을 통한 시연과 시식 등 2차 심사를 거쳐 광주만의 맛과 멋, 영양을 담은 광주스타일의 작품으로 대상 1편, 금상 2편, 은상 3편, 장려상 14편을 확정했다.

서은홍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